

일제·한국전·민주화의 상흔...K가족의 위태로운 초상

정주미의 인디봄 40 장손

5월 5일 어린이날, 식구들과 이른 저녁을 먹고 난 후 비도 오고 해서 일찍 집에서 쉬고 있었다. 뒹굴거리며 리모컨으로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다가 한 채널에서 멈췄다. 61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아, 맞다. 오늘이지.' 요새는 자주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인지 이 프로는 꼭 봐야지 하고 생각해 두고서도 또 잊고 있었다.

백상예술대상은 매년 4-5월에 진행되는 시상식으로 1965년 한국일보의 창립자 장기영이 한국 대중문화예술의 발전과 예술인을 위해 제정, 1년간 방영 또는 상영한 TV·영화·연극 부문의 제작진과 출연자에게 시상하는 종합 예술상이다. '백상'은 장기영의 호에서 유래했으며 한국일보 계열사였던 일간스포츠가 주최해 오다가 일간스포츠가 중앙일보로 인수된 후 2022년 이후로는 중앙그룹이 주최하고 있다. 2012년 이후 JTBC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백상예술대상은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 OTT 드라마까지 시상 범주 안에 넣음으로써 그 권위가 더해지고 있다. 올해도 MBC '이토록 진실한 배신자', 넷플릭스의 '꼭꼭 속았수다'를 비롯해 박찬욱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전란', 우민호 감독의 '하얼빈' 등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 감독, 배우들이 좋은 작품으로 받을만한 상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나에게도 인지도가 있는 시상식 중 하나이다.

백상을 보고 난 후 나에게 궁금증을 일으킨 한 작품이 있었다. 바로 신인감독상을 받은 오정민 감독의 '장손'이다. 인디스토리에서 배급을 담당 독립영화 '장손'이 신인감독상 수상에 이어 작품상 등 여러 부문에서 후보로 지명되는 것을 보고 더욱 보고 싶어졌다.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백상에서 주목받았는지. 여기저기 OTT를 찾아봤다.

● 70년 묵은 대가족의 비밀

영화는 수증기로 자욱한 두부 공장에서부터 시작됐다. 할머니 말녀, 엄마 수희, 큰고모 혜숙, 임신 중인 누나 미화가 오늘 제사 음식을 열심히 장만 중이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이지만 에어컨을 틀자는 미화 말에 할머니는 연신 선풍기만 돌리신다.

아버지 태근은 방에서 화투만 치고 있고 출타했던 할아버지도 집에 들어온다. 서울에서 내려온 장손 성진이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손자를 보고 반기며 날씨가 너무 덥다며 바로 에어컨을 틀다. 전형적인 장남 위주의 집안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자정에 꼭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집안 풍습에 오늘날은 일찍 지내자고 성진이 제안을 하고 그동안 미동도 없던 할아버지가 성진의 제안을 승낙한다. 집안의 장손인 성진은 서울에서 무명 배우로 보증금을 빼 영화를 제작 중으로 엄마는 이런 성진에게 등짝 스텐을 날리지만 집안의 기둥인 성진은 제사 시간도 바꿀 만큼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다.

아버지인 태근은 성진에게 하던 일 그만두고 두부 공장을 이어받으라고 하지만 성진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 언뜻 보기에 단란한 대가족으로 보이지만 역시나 보통의 K집안처럼 제사가 끝나고 집안은 난장판이 된다.

할아버지는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으로 둘째 고모가 이민 가는 것을 못마땅해하고, 두부 공장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성진을 보고 아버지는 화를 낸다. 그러다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두부 공장의 운영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다 언성이 높아졌고 화가 난 아버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술주정을 부리고 이 모습을 본 성진이 겨우 아버지를 진정시킨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할머니가 돌아가신다. 장례를 위해 가족들은 또 한번 모이게 되고 갑작스런 할머니의 죽음은 가족의 민낯을 또렷이 보여준다. 큰고모는 매일 100만 원씩 할머니에게 보낸 할머니 통장이 사라졌다며 다시는 이 집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화를 내고 아버지는 할머니 이제 막 물어드리고 왔는데 돈타령이냐며 크게 다투게 된다.

그날 밤 큰고모가 살던 집에 불이 나게 되고



영화 '장손'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할머니의 장례를 위해 모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가족의 민낯을 보여준다.



영화 '장손' 포스터



영화 '장손'

제삿날 모인 3대 대가족 분란 예기치 못한 이별로 갈등 고조 가족비판보다 이해하기 초점 명절·장례식장 혼란 다툼들 이젠 옛것 돼버린 추억 한장면

성진은 원인 모를 불에 대해 아버지를 의심한다. 자신의 졸업식날 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큰고모부 병실을 찾은 성진은 고모에게 아버지가 불을 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지만 고모는 자신이 불을 낸 거라고 뜻밖의 말을 전한다. 성진은 큰고모가 왜 불을 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선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죽은 뒤 치매 증세가 생기고 빨갱이들이 내려온다며 산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한다. 이런 할아버지가 걱정돼 함께 잠을 자던 날 밤 성진은 할아버지의 혼자 중얼거림에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한다. 할아버지에게서 어릴 적 학살 사건으로 인해 부모님을 잃은 이야기, 왜 아버지에게 두부 공장을 맡겼는지에 대한 이야기 등을 들으며 성진은 할아버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다.

다음날 아침 성진은 서울로 가기 위해 택시를 부르고 할아버지가 그를 배웅한다. 할아버지는 성진에게 검은 비닐봉지를 전해주며 자신이 죽기 전까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다. 성진은 차 안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물

건을 꺼내보는데 그것은 성진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큰고모가 할머니에게 준 돈을 포함해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으로 차곡차곡 입금된 상당한 액수의 돈이었다. 할아버지는 성진을 배웅한 후 잠시 두부 공장에서 발길을 멈추다 갑자기 산속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 한국 근현대사 관통하는 삼대 이야기

영화는 고레에다 감독의 '결어도 결어도

(2009)'와 임권택 감독의 '축제(1996)' 두 영화를 자연스럽게 연상케 했다. 일본 영화이긴 하지만 형의 제사에 모인 시골집에서 가족의 말할 수 없었던 서로 간의 미묘한 감정들을 섬세한 영상으로 잘 풀어낸 '결어도 결어도'와 한국의 전통 장례식 장면과 장례식에 모인 가족들의 감정 표출을 다각적으로 보여준 '축제'가 잘 혼합된 영화라고나 할까. 그러나 역시 한국 가족의 모습을 담았다는 점에서는 영화 '축제'에 보다 가까

왔다. 영화 '장손'은 할아버지 승필, 아버지 태근, 그리고 손자 성진, 삼대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주요한 근대사를 말없이 관통한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할아버지는 간혹 일본 말로 뭔가를 중얼거리기도 하고 한국전쟁 때 보도연맹 학살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사연을 어두운 밤 성진에게 중얼거리듯 이야기한다.

아버지 태근은 삼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을 다녔지만 민주화 운동에 가담해 고문의 후유증인지 모를 다리를 절뚝이며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할아버지의 바람대로 법관은 되지 못한 채 지금은 두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성진은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서울로 가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영화 일을 하며 지낸다. 이 삼대의 모습에서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민주화 운동, 그리고 현재를 그들 각자의 상흔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대변한다.

● 프레임에 담긴 진정성

영화 '장손'은 백상에서 신인감독상을 수상한 오정민 감독의 장편영화 데뷔작이다.

오정민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스무살 무렵 할머니가 돌아가신 기억에서 출발한 이야기"라며 20대 시절 가족의 숙물적인 모습에 비판적이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시선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고 가족을 배척하기보다는 좀 더 이해해 보고 싶어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시나리오에 담은 영화는 삼대가 모인 집안의 저녁 식사 풍경, 한국 전통 제례 모습, 상여를 매고 매장하기까지의 전통적인 장례식의 풍경, 장례식 조의금을 계산하는 장면 등 재현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이러한 디테일에서 오는 진정성은 영화에 대한 몰입도를 더한다. 오프닝과 엔딩 장면을 비롯해 여러 롱테이크 장면들은 격렬하게 치닫는 가족들 간의 감정과 대비시킴으로써 호흡으로 유유히 흐르듯 담아낸다.

예전에 친구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 있다. 장례식장에 어른이 없으니 싸움이 안난다고. 명절이나 장례식, 또는 제사 때 가족이 모이면 항상 분란이 났던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그런 복잡했던 그 시절도 소환시킨다. 전통적인 제사와 장례 풍경. 이제는 보기 힘든 옛것이 돼버린 지금, 한번 정도는 봐도 좋을 영화가 아닐지.

정주미

일본 메이지쿠인대학 대학원 예술학 석사학위 박사, 전 광주 독립영화관gift 부관장·프로그래머

